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편지 · 편지 모음 서문

『신앙감정론』 부록 「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 서론(예일판 편집자가 쓴 글), 인쇄 643~649쪽

🧭 흐름 한눈에

편집자는 먼저 에드워즈와 스코틀랜드 목사 토머스 길레스피가 주고받은 편지 네 통이 왜 중요한지 밝힌다. 이 편지들은 『신앙감정론』의 주장을 넓혀 설명하고, 에드워즈가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와 이어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어 편지들이 어떤 판본을 거쳐 전해졌는지, 이번 판은 무엇을 원본으로 삼았는지, 길레스피는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한다. 핵심은 길레스피의 첫째 질문이다. “영적인 빛 없이는 확실히 믿을 수 없다”는 에드워즈의 말은, 빛이 없는 사람은 믿을 의무도 없다는 뜻이냐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그런 뜻이 아니라며 '두 문장의 구별'로 답한다. 편집자는 이 답이 능력과 의무의 관계라는 더 깊은 문제를 피해 갔다고 비판하고, 그 문제는 결국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로 이어진다고 결론짓는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이 편지들을 왜 함께 읽는가

편집자는 이 편지들이 세 가지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흥미로운 신학 문제를 다룬다. 둘째,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에서 짧게 말한 주장을 더 길게

것과, 그가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운동과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 사람이 두 번씩 쓴 편지 네 통이 한자리에 실린 것은 이 판이 처음이다. 이전 판본들은 에드워즈의 답장만 실었다. 그래서 독자는 에드워즈가 무엇에 대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 편지는 『신앙감정론』의 해설 노릇을 한다
2. 에드워즈의 책은 해외에서도 읽혔다
3. 질문 편지와 답 편지를 함께 실은 첫 판이다
4. 답장만 읽으면 질문이 보이지 않는다

> **(인용 없음)**
> 이 절은 편지의 의의와 판본을 소개하는 대목이라 성경 인용이 없다

📜 2. 편지는 어떻게 전해졌나 — 판본과 원본

판본마다 편지를 다룬 방식이 달랐다. 우스터 판본은 부록에 편지를 하나도 싣지 않았다. 드와이트 판본은 에드워즈의 편지 두 통만 부록에 싣고, 길레스피의 편지는 제1권의 생애 부분에 따로 넣었다. 그런데 부록에는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 에드워즈의 두 편지를 처음 부록으로 실은 것은 리이즈 판본(제4권, 1808년)이다. 네 통 전체는 1798년 『에딘버러 계간지』 제1권에 순서대로 처음 실렸다. 길레스피 1746년 11월 24일, 에드워즈 1747년 9월 4일, 길레스피 1748년 9월 19일, 에드워즈 1750년 4월 2일 편지다. 앤도버 컬렉션에는 네 통 모두가 원본이나 사본으로 남아 있다. 에드워즈의 두 편지는 친필 원본이다. 첫 편지 뒷면에는 주소와 서명이 있고, 에드워즈가 둘째 편지에서 첫 편지의 “사본이 없다”고 두 번 말하므로 실제로 보낸 것이 확실하다. 길레스피의 편지는 상태가 나쁜 사본뿐이어서 잡지 인쇄본을 따랐다. 에드워즈의 편지는 원본대로 편집했다. 편집자는 이 점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드와이트가 편지를 마음대로 고쳤고 리이즈 판본은 구하기 어려워서, 독자들이 그동안 불완전한 드와이트 판으로만 편지를 접했기 때문이다.

1. 네 통 전체는 1798년 잡지에 처음 실렸다
2. 드와이트는 편지를 자유롭게 고쳤다

4. 길레스피 편지는 잡지 인쇄본을 따라 실었다

> **(인용 없음)**
> 판본과 원본을 다룬 서지 정보라 성경 인용이 없다

📜 3. 토머스 길레스피와 스코틀랜드

편집자는 길레스피(1708~1774)를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자'로 부르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본다. 그는 '구빈 장로회(구빈 노회)'를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구빈 장로회는 저항 조직이었고, 뒤에 다른 이들과 합쳐 연합장로교단이 되었다. 길레스피는 에딘버러 대학을 중퇴하고 필립 도드리지가 이끌던 노샘프턴의 지방 신학원에서 공부해 1741년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편집자는 이 이야기가 그 시대 저항적 신학원들의 역할을 보여 준다고 평가한다. 큰 대학들이 학문적으로 쇠퇴하거나 복음적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이던 때에 이 신학원들이 목회 후보생을 길렀다는 것이다. 구빈 장로회가 생긴 계기는 이렇다. 성직 수여권자가 인버케이싱 교회에 세운 후보생의 안수를 길레스피가 반대했고, 그 일로 1752년 총회에서 추방되었다. 길레스피와 동료들은 성직수여권 제도와 교회 법정의 전횡에 맞섰다. 에드워즈는 길레스피의 동료인 맥컬록, 로브, 특히 존 어스킨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집자는 에드워즈가 스코틀랜드 기독교계에 끼친 영향이 컸지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1. 길레스피는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자였다
2. 구빈 장로회를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다
3. 1752년 안수 반대 문제로 총회에서 추방되었다
4.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 목사 여럿과 편지를 나눴다

> **(인용 없음)**
> 인물과 교회사를 소개하는 대목이라 성경 인용이 없다

> 작가 메모: 재료는 “노샘프턴의 지방 신학원”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목회한 뉴잉글랜드의 노샘프턴과 같은 곳으로 섞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4. 길레스피의 첫째 질문 — 빛이 없으면 믿을 의무도 없나?

편집자는 길레스피의 비평이 구체적이고 해당 문단을 분명히 짚기 때문에 편지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첫째 질문만은 미리 풀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영적인 빛이나 시각' 없이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영적인 빛이란 성령이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보고 맛보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길레스피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읽었다. 에드워즈는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 의무는 살인과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지킬 의무만큼 확실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의무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길레스피는 이것을 모순으로 보았다.

1. 에드워즈: 영적 빛 없이는 확실히 믿을 수 없다
2. 길레스피: 그럼 빛 없는 사람은 의무도 없나?
3. 믿을 의무는 살인 금지 계명만큼 확실하다
4. 길레스피는 두 말이 서로 부딪친다고 보았다

※ 이 글에는 성경 인용이 없다. 아래는 대본용 참고 구절이며 에드워즈나 편집자가 인용한 것이 아니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20:13 > 살인하지 말라	(참고) 길레스피가 비교로 든 '살인 금지' 계명
출애굽기 20:15 > 도둑질하지 말라	(참고) 길레스피가 비교로 든 '도둑질 금지' 계명
신명기 6:5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고)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
고린도전서 2:14	(참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고)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영광을 앎

📜 5. 에드워즈의 답 — 두 문장의 구별

에드워즈는 먼저 길레스피가 논평하기 전에 본문을 끝까지 읽었으면 좋았겠다는 뜻을 비친다. 그러고는 누구든 하나님을 믿을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거나 암시할 생각은 없었다며 길레스피의 말에 동의한다. 이어서 『의지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는 구별로 문제를 풀려 한다. 하나는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을 의무가 있다”는 문장이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빛 없이 믿을 의무가 있다”는 문장이다. 두 문장에서 '영적인 빛 없이'라는 말의 뜻은 같지만, 걸리는 대상이 다르다. 앞 문장에서는 그 말이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래서 빛 없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된다. 뒤 문장에서는 그 말이 믿는 행위에 붙는다. 믿게 해 주는 바로 그것인 빛을 빼고 믿으라는 말이 되므로, 그런 의무는 말이 되지 않는다. 편집자는 이 구별이 지나치게 미묘한지, 에드워즈의 견해 안에서 정당하게 세울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1. 에드워즈: 누구도 믿을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2. '빛 없는 사람이' 믿을 의무는 있다
3. '빛 없이' 믿을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같은 말이 사람에 붙는지 행위에 붙는지의 차이다
5. 편집자: 구별이 지나치게 미묘할 수 있다

※ 참고 구절이며 이 글에 인용되지 않았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사도행전 17:30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참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신다 — 의무의 보편성
요한일서 3:23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참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 믿음은 명령된 의무
요한복음 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고) 아버지가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 은혜 없는 믿음은 불가능

“영적인 빛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 6. 편집자의 비판 — 능력과 의무

편집자는 둘째 문장에 대한 에드워즈의 말은 정당하고 그의 견해와도 맞는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첫째 문장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고 본다. 묘사상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빛 없이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빛 없는 사람이 믿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믿게 해 줄 그것, 곧 빛을 얻을 의무가 있다”고 했다면 변호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에드워즈의 견해에서는 빛도 의지의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 문제는 그대로다. 두 사람이 받아들인 답은 “능력은 의무의 규범이 아니다”였다. 할 수 있느냐가 해야 하느냐의 기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편집자는 이 답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능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이것이 결정적인데, 에드워즈 자신이 '빛 없이 믿을 의무'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므로 모순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렇다면 능력은 의무의 규범은 아니더라도, 의무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가리는 데는 적어도 관련된 요소라는 것이다.

3. 빚은 의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능력은 의무의 규범이 아니다”는 불충분하다
5. 에드워즈도 능력을 판단 근거로 이미 썼다

※ 참고 구절이며 이 글에 인용되지 않았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에베소서 2:8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음
빌립보서 2:12 >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고)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 — 의무의 측면
빌립보서 2:13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고) 하나님이 원하게도 행하게도 하신다 —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은 의무의 규범이 아니다”

📜 7. 피해 간 근본 질문과 둘째 왕복 편지

편집자가 보기에 에드워즈가 이 왕복 서신에서 피하고 있는 근본 질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의지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이다. 칼빈주의 전통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까지 주신다고 강조해 왔다. 이것을 강조할수록, 믿을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의 뜻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길레스피는 둘째 편지에서 바로 이 점을 파고든다. 그는 에드워즈의

영적 빛에 대해 두 사람의 차이는 쓰는 말의 차이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에드워즈는 그 편지에서 영적 빛이 왜 필요하다고 가르쳤는지 실제 이유를 더 분명히 밝힌다. 믿음에 필요한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는 살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확신을 가지라고 다그친 사람들이 미국에서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이 지적이 참된 믿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 준 점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피조된 의지가 행할 수 없는 의무란 무엇이냐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비켜갔다고 본다.

1. 근본 질문: 은혜 앞에서 사람의 의지는 무엇인가
2. 은혜를 강조할수록 '의무'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3. 길레스피는 둘째 편지에서 이 점을 파고든다
4. 에드워즈: 우리 차이는 말의 차이일 뿐이다
5. 실제 이유: 확신을 강요한 사람들이 해를 끼쳤다

※ 참고 구절이며 이 글에 인용되지 않았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고린도후서 13:5 >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참고)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 — 확신은 강요가 아니라 점검의 대상
요한복음 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고)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다 — 칼빈주의 전통의 강조점

📜 8. 『의지의 자유』로 놓인 다리

편집자는 이 편지에서 시작된 논의가 필연적으로 『의지의 자유』의 문제들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의무, 은혜와 의지의 관계는 바로 그 책이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은

말도 같은 흐름이다. 이 서론은 편지를 읽기 전에 독자에게 이 긴장을 미리 보여 주려는 글이다.

1. 이 논의는 『의지의 자유』로 이어진다
2. 편지는 두 책을 잇는 연결 고리다
3. 의무와 능력은 이후 저작의 큰 주제다

> **(인용 없음)**
> 결론 단락이라 성경 인용이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적인 빛(영적 시각)
성령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일이 참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

의무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능력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힘. 이 글에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다.

“능력은 의무의 규범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가 해야 하느냐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원칙.

육에 속한 사람(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직 성령으로 새로 나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확신

칼빈주의 전통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조건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강조하는 개혁주의 흐름.

구빈 장로회(구빈 노회)
1752년 길레스피가 총회에서 추방된 뒤 생긴 스코틀랜드의 저항적 장로회.

성직수여권
지역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후보를 지명하던 제도. 길레스피는 이에 맞섰다.

『의지의 자유』
의지·능력·의무의 관계를 다룬 에드워즈의 후기 저작.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이 서론은 에드워즈의 글이 아니라 예일판 편집자의 해설이다. 이번 판은 길레스피의 질문과 에드워즈의 답 네 통을 처음으로 함께 싣는다.
- 쟁점은 “영적 빛 없이는 믿을 수 없다면, 빛 없는 사람에게도 믿을 의무가 있는가”이다.
- 에드워즈는 '빛 없는 사람의 의무'와 '빛 없이 믿을 의무'를 구별해,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답한다.
- 편집자는 이 답이 능력과 의무, 은혜를 받는 의지의 문제를 비켜 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확신을 강요하는 가르침을 경계한 에드워즈의 실천적 이유는 높이 평가한다.
- 이 왕복 서신은 『신앙감정론』과 『의지의 자유』를 잇는 다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5편 · 사탄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 · 길레스피에게 보낸 편지와 내 신앙 점검표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